

'이재난고' 고창군 기탁·기증식 열려

이재 황윤석 종손 황병무 씨, 이재난고 58책·이재유고 목판 100점 기증

고창군이 지난달 30일 오후 조선 후기 호남을 대표하는 고창의 실학자 이재 황윤석(1729~1791)의 8대 종손인 황병무씨로부터 '이재난고' 58책과 '이재유고' 목판 100점을 기탁·기증받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재난고'는 그동안 문중(개인소장)에서 보관해 왔으며, 지난 1984년에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됐다.

이재 황윤석의 종손으로 국방대학교 명예교수인 황병무씨는 그간 문중에서 소장했던 '이재난고'와 국립전주박물관에 기탁 보관했던 '이재유고 목판' 100점을 고창군에 기탁·기증해 체계적으로 관리·연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 역사적 가치와 사상 등을 알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이재 황윤석은 고창 출신의 대실학자로 천문학, 역사학, 역사학, 수학, 언어학, 지리학, 예술, 음악, 종교 등 다방면에 큰 업적을 남긴 조선시대 대표 학자이자 실학의 거목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난고'는 황윤석이 10살 때부터 63세로 서거하기 이틀 전까지 53년에 걸쳐 작성한 일

기로, 현존하는 조선시대 일기류 가운데 규모가 가장 방대하며 그 내용도 다양한 분야를 소상하게 기록하여 다른 일기는 견줄 수 없을 만큼 매우 우수하다.

특히 이번에 기탁한 자료를 통해 애초 '이재난고'는 모두 60책으로 이뤄졌고, 그의 수고본(手稿本, 저자가 손수 쓴 원고로 만든 책) 2책까지 더해 전체가 62책이고, 약 530만 자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재난고'는 47책의 일기와 함께 '평해황씨 세계' 1책, '이재연보' 4책, 명종~광해군 편년체 역사서의 초고 1책, 잡지 1책, '이수신편' 4책 등 모두 62책으로 구성됐고, '이수신편'을 제외한 58책이 기탁됐다.

'이재난고'는 1829년 '이재유고'를 편찬할 때 또는 1934년 '이수신편'을 발간할 때 60책으로 장정(裝幀, 책의 표지나 속표지, 도안 등과 같은 겉모양을 꾸밈)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나 이번 기탁한 것은 2책이 더 확인돼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이재난고'에는 조선 후기 정치, 경제, 사회 등 당시의 생활문화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당시 쌀값, 국밥값, 고기값 등 일용품의 가격과 품질은 물론, 여행 등을 통해 들린 마을 이름과 식물, 광물 등을 한자와 한글로 나란히 적어 놓아 당시 생활사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한국 저술사상 최고의 사료(史料)로 보물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기상 군수는 "이재 황윤석 선생 후손께서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 소중한 '이재난고'와 '이재유고 목판'을 고창군에 기탁·기증하는 큰 결심을 해 주셨다"며 "소중한 유물의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잘 보존하고 연구와 활용방안을 마련해 그 가치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표 기록문화재이자 조선 시대 문화콘텐츠 보고인 '이재난고'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승격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고창고인돌박물관 전시실 리모델링 후 기증·기탁한 문화재를 대중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전시를 열 계획이고, 고창학 및 조선시대 연구 등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문화예술공연 할미넵&립업 '순창다움' 모습.

순창군, 연말까지 문화공연 다채

11일 향토회관에서 아동극 공연·매월 문화가 있는 날 다양한 공연 진행

순창군이 코로나19로 중단된 문화공연을 오는 11일부터 재개하기로 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군은 오는 11일 향토회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아동극 '책 먹는 여우' 공연을 무료로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타 지역으로 이동이 어렵고 문화공연 관람이나 뛰어놀 기회가 부족했던 관내 어린이에게 좋은 선물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람객은 마스크 착용시에만 입장이 가능하다. 군은 전체 465석인 공연장내 관객간 거리두기를 위해 115석만 사용할 예정으로, 관람객 입장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첫 공연을 장식할 아동극 <책 먹는 여우>는 대한민국 대표 어린이 뮤지컬로 요즘 휴대폰, 유튜브 문화에 익숙해지고 책이나 공연문화와는 거리가 먼 어린이들에게 책을 재미있게 읽는 여우가 주인공이 되어 책과 공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인 '문화

가 있는 날'을 맞아 매월 다양한 공연을 준비할 계획인 가운데 뮤지컬부터 음악극, 버스킹 공연, 아동 연희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준비했다.

오는 5월 20일에는 전주 문화예술단체인 나니네가 창곡 '심청, 꽃이 피다'를 선보인다.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낮게 하려고 인당수에 빠지는 심청이의 애절한 마음을 창곡으로 표현해 가정의 달 효(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6월부터는 체계산 출렁다리와 강천산, 향가유원지 등 순창을 대표하는 관광지에서 버스킹 공연이 열리며, 남성 피아니스트 4인조 앙상블 클라비어와 발레리나, 발레리노 등 댄서 퍼포먼스가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향토회관에서 선보인다.

이외에도 군은 '세계적 예술축제', '나포리 음악다방', '달수마을 수호신 해랑이', 창작 뮤지컬 '설공전전' 등 연말까지 군민들에게 웃음꽃을 선사할 계획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태권도원, 5월 가정의 달 이벤트 '풍성'

어린이날 무료입장·다양한 이벤트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장용갑)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태권도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태권도원 가정의 달 이벤트는 어린이날 태권도원 무료입장과 태권도원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 태권도원 입장권 50% 할인 및 이모티콘 선물체험관 Yap! 무료 이용과 '태권격과 왕 이벤트', 국립태권도박물관 해설 프로그램 등이다.

어린이날은 태권도원 입장료가 무료이고 매표소에서 어린이들에게 풍선을 선물한다. 아울러 이달날인 6일~30일까지는 '태권도원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고객을 대상으로 입장권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태권도원 채널 추가 방법은 카카오톡을 실행하고 상단 검색창에 태권도원을 검색채널 추가하기후에 매표소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 신규 추가 시 태랑·진진·백운도사 등 태권도원 마스크도 이모티콘 10종을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선물한다.

이외에도 재오픈한 체험관 YAP에서는 AR·VR 콘텐츠 등을 14일까지 무료로 체험할 수 있고 태권 격과 왕 콘텐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점수에 따른 기념품도 제공한다.



태권도원 상설공연 모습.

국립태권도박물관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주말 등 5월 휴일에 슬기로운 태권 생활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 방문객에 대해 QR 체크인과 체온 점검, 마스크 착용 등

을 확인한다. 11시와 14시 태권도원 상설공연이 펼쳐지는 T1공연장 등을 출입 시에는 체온을 추가로 확인하고 모노레일과 셔틀버스를 비롯한 각종 시설과 체험 기구 등에 대한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어린이들 위한 국악나들이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 동반 가족 모두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들을 개최한다.

지난 1일 오전 11시에는 창작그룹 '동화'가 우리나라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한 아동 국악 뮤지컬 '나무의 아이'를 선보였으며, 오는 5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는 판소리공장 바다소리에서 어린이날 특별공연으로 판소리 '홍보가' 중 '제비노정기'를 재해석한 작품을 공연한다.

이 작품은 판소리의 특유의 해학과 신나는 장단으로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가족 국악 뮤지컬로, 다리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제비 반비의 여정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는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를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날 수 있다. 이야기보따리는 3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문의는 전화(063-620-2329) 혹은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예원당(대극장)에서 객석 띄어 앉기 진행되어 사전예약을 통해 선착순 회당 200명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예약은 필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8회 전국 품바 명인전

2021년 5월 7일(금) 오후 6시 30분~
전주 풍남문 광장

- ▶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 ▶ 주관: (사)전북문화진흥원
- ▶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매일신문사

**위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